새로운 모색 박범훈 베스트 콜렉션

6월 1일(금)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니르바나' 등 총 6곡 연주
이시하마 타다오, 김애라 등 협연
"회고무대 아닌, 새로운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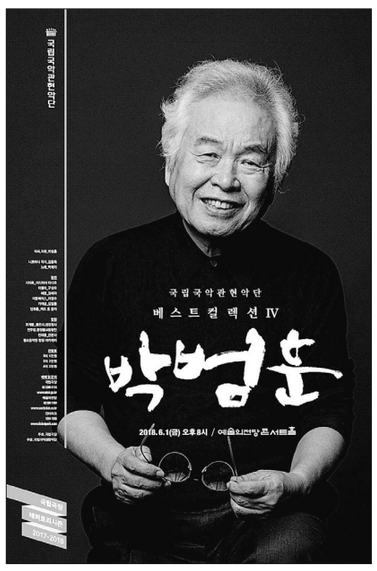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국립국악관현악단은 6월 1일(금)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베스트 콜렉션 IV-박범훈'을 개최한다. '베스트 콜렉션'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2015년부터 선보인 시리즈 공연으로, 올해는 국악과 불교음악의 발전과 대중화에 앞장서온 작곡가 겸 지휘자 박범훈의 음악을 무대에 올린다.

박범훈은 이번 공연에서 새롭게 작곡한 두 곡을 포함해 총 여섯 곡의 연주곡을 선보인다. 공연은 '달마동점'으로 문을 연다. 1997년 작곡한 북인도의 현악기 시타르 협연곡 '동점(東漸)'을 수정 · 보안해 새롭게 선보인다. 15세부터 시타르를 연주한 이시하마 타다오가 협연한다.

이어 박범훈의 명곡으로 손꼽히는 두 곡이 연주된다. 2013년 초연했던 해금협주곡 '가리잡이'를 김애라와 협연하고, 가야금 협주곡 1999년 초연했던 '가야송'을 김일륜과 협연한다. 이번 공연에서 초연되는 단트롱(Dan Trung) 협주곡 '베트남 아리랑'은 베트남 전쟁의 아픈 역사를 딛고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를 모색하는 박범훈의 의지가 담긴 작품이다. 단트롱은 대나무로 만든 베트남의 전통 유율타악기로 대중에게는 아직 생소한 악기다. 세계무대에 단트롱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 까오 호 응아(Cao Ho Nga)가 내한해 아리랑의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초연 곡 '니르바나(Nirvana)'는 도울 김용옥의 시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약 250여 명의 합창단과 박애리의 소리가



관현악의 웅장한 사운드가 어우러져 공연장을 환희와 열기로 가득 채울 것을 기대된다. 도올은 초연 곡 '니르바나'에 대해 "완숙한 해탈의 경지에서 우러나온 박범훈 지고의 작품이다"고 공연의 기대감을 밝혔다.

국립국악관현악단과 5년 만에 호흡을 맞추는 박범훈은 한국 최초의 사설국악관현악단인 중앙관현악단을 창단했고, 1995년 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 단장과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뿐만 아니라 한 · 중 · 일 대표 음악가가 연합해 만든 민족악단 '오케스트라 아시아' 창단에도 기여했다. 국악기 개량사업과 대중화에 힘썼고, 레퍼토리 개발을 통해 장르의 스펙트럼을 넓히며 한국음악계의 혁명과도 같은 반향을 일으켰다. 교성곡 '붓다', '보현행원송', 찬불가 '찬미의 나라', '무상계', '부처님오신날' 등 수 많은 곡을 작곡했고, 〈한국불교음악사연구〉 등을 집필해 불교음악의 역사를 정립하는데 공헌한 바 있다. 현재 조계종에서 설립한 불교음악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훈은 "이번 공연은 음악 인생을 회고하는 무대가 아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고 이번 공연의 의미를 밝혔다. 문의 (02)2280-4114

디지털인문학시대, 불교학 방향은?

디지털인문학시대에 불교학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과 인문한국(HK)연구단(단장 김종욱)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6월 2일 오후 1시 동국대 다향관세미나실에서 '디지털인문학과 불교-데이터 마이닝과 시각화의 미래'를 주제로 봉축학술대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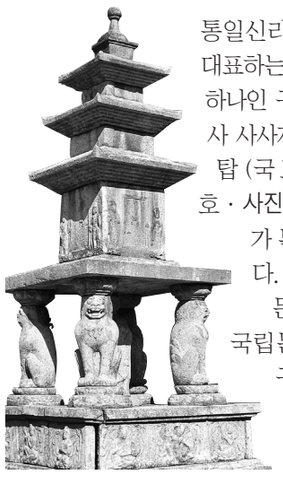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인문학 연구와 디지털 시대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등이 조명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는 시모다 마사히로 도쿄대 교수의 '디지털인문학과 불교' 기조강연을 비롯해 △중국불교문헌의 문자인식(OCR)(도날드 스토젼, 하버드대) △중국불교사에서 누가 '중심' 인가?(마르쿠스 빙엔하이머, 템플대) △불교문헌 분석에서 N-grams의 활용(박보람, 동국대) △불교사원의 3D 모델링(모로 시게키, 화원대) 등이 발표된다.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장 겸 인문한국(HK)연구단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불교가 무한대의 지식정보를 조건에 의해 생성되는 연기법으로 수렴하는지를 다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국보 '화엄사 사사자 석탑' 보수 들어간다

국립문화재硏 · 구례군 23일 협정 체결… 체계적 수리 진행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석탑 중 하나인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국보 제35호 · 사진)의 보수가 본격화 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와 전남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5월 23일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의 보수를 위한 상호 업무 협정을 체결한다.

이번 협정을 통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사사자 삼층석탑 보수에 대한 구례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학술조사연구, 구조보강, 과학적 보존처리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수리에 들어간다.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은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기반 조성, 건축 · 보존과학 · 고고학 · 지반공학 등 인접분야의 융합연구 · 훼손부재의 보존처리 · 보수설계 · 석탑 조립과 주변정비를 수행하게 되며, 모든 과정은 기록화해 교육과 연구 자료로도 활용된다.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놓고 정상에는 상륜부를 구성한 형태인데, 상층기단에 놓여있는 4마리의 사자와 승상(僧像)으로 인해 전형적인 신라석탑의 양식에서 벗어난 경향을 보여 특수형 석탑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해당 문화재의 현장 공개, 기술교육, 공개학술행사 추진 등을 진행해 보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현장 교육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적 토론 어떻게 할 것인가

불광연구원, 6월 1일 토론 주제 학술연찬회

현대사회에서 소통은 큰 의미를 가지며, 소통을 위해서는 많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 지혜를 나누는 불교적 토론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마음을 여는 문답 지혜를 나누는 토론'을 주제로 봉축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연찬회에서는 불교에서 보여진 토론의 역사부터 전법을 위한 토론 기법까지 다양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유동걸 영동일고 교사는 '문답과 토론의 이론적 원리와 자세'를, 신희정 창원중앙고 교사는 '부처님의 문답과 초기불전에 나타난 토론'을, 차상엽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교수는 '대승경전과 논사들의 문답과 토론'을,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는 '전법을 위한 문답과 토론기법'을 각각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이중표 전남대 교수, 허우성 경희대 교수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학술연찬회에 대해 불광연구원은 "토론이라는 불교 전통을 조명하는 것은 신행생활에 깊이를 더하고, 전법과 교화에 필요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⑧

손선희 울산대학병원 봉사자

봉사는 보시행…"봉사 날 기다려져"



손선희 봉사자는 남편의 추천으로 2009년부터 정토마을서 불교호스피스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것을 계기로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한 것이 벌써 10년 가까이 됐다.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신심이 생겨 행복하게 봉사를 시작했다는 손선희 씨는 이제 봉사를 가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한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항상 보람을 느껴요. 봉사라는 게 애초에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행을 봉사를 통해 하고 있는 것 같아 항상 뿌듯합니다. 내 몸이 성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항상 마음 속에서부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찾아가는 월요일이 기다려지고, 책임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손 씨도 처음에는 호스피스 봉사가 힘들었다. 일반 병실에서 호스피스로 오는 과정에서 거부감을 느끼고 예민해지는 환자들이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 봉사자들의 봉사도 거부한다. 이때 봉사자들과 도반들은 함께 환자의 마음을 열기위해 노력한다. 처음에는 봉사를 거부하는 환자들의 반응에 상처도 받고,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환자들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마음을 여는 것을 보면서 손 씨는 스스로 더욱 단단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4년 전, 완강하게 봉사를 거부하던 청년이 기억나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암 투병을 오래해 매우 까탈스러웠어요. 1인실에서 봉사도 거부했죠. 너무 어린나이에 호스피스에 와서 민감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사코 봉사를 거부하던 청년이었는데, 마지막 갈 때가 되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봉사자들을 받아들이더라구요. 그때 청년과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이 봉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손선희 씨는 월요일 마다 병동에 가서 환자들의 세발, 목욕, 마사지 등을 돕는다. 지난 월요일에는 새로운 도반이 함께 했다. 같은 불자였던 그 도반은 시부모님을 호스피스서 모시다가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 봉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한명의 봉사자가 또 다른 봉사자를 만드는 것이다. 몸이 허락할 때 까지 평생 호스피스 봉사를 하겠다는 손 씨의 앞날에 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란다.

박진형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佛紀 2562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대한불교진각종
부산교구청
교구청장 진광
종무국장 원영
부산교구신도회
신교도 일동
■ 부산 동구 구청로 18-1
TEL 051)464-0668

지장기도도량
천 불 정 사
주 지 선묵 고담
총무국장 심 일
원 주 조정자
신도회 회장 이정민 변호사
신도회 부회장 양귀임 박상옥
신도회 총무 김영애
거사림 회장 이경철
홍련회 회장 신희숙
사부대중 신도일동
■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30-9(장전동)
TEL 051)583-9233 / FAX 051)583-6362

21세기 새로운 불교 공동수행체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
사단법인 통섭불교원
원장 김성규
통섭불교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격월간지 통섭불교
◇ 통섭불교교리강좌 (매주 수요일 아함경 이야기)
◇ 통섭불교참선수련 (매주 목요일)
◇ 통섭불교사이버대학 www.tongsub.com
◇ 철야참선법회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 대구 남구 대명역 1길 11 통섭불교원
TEL 053-621-2256

금정산 부전선원
불교중흥실천협의회
화 엄 선 림 회
전국선원수좌후원회
사부대중일동
제5차 참선대법회
혜민 스님과 함께하는 '힐링'
2018년 11월 11일 오후 14시
(장소 미정)
■ 부산시 동래구 온천 3동 1246~5
TEL 051-505-5078
